

# 강진 이전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시동

### 연간 1만여 교육생 강진 방문 예정...교통편의 협의 이승옥 군수 "교육생 기반 관광산업 활성화 할 것"

강진군으로 새롭게 자리를 옮긴 전라남도인재개발원(舊 전남인재개발원)이 4월 13일, 역사적인 첫 대면 교육에 들어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13일, 강진군 도암면 소재 전남인재개발원에 방문해 교육생에게 환영의 뜻을 전달하고 강진 특산물인 장미꽃과 쌀귀리, 가래떡을 전달했다.

군은 전남인재개발원의 강진 이전에 따라, 연간 1만여 명의 교육생이 강진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직·간접적 방문 인원은 연 1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은 당장 교육생의 교통 편의를 위해 금호고속과 오전, 오후 각 1회 운행

을 4월 14일부터 실시하기로 협의하고, 총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해 군도 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숙박시설을 정비하고, 주요 관광지 및 맛집,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해 교육생의 체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전남인재개발원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섬세하게 지원하고, 이들의 강진 방문이 재방문으로 이어져 군민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옥 강진군수가 지난 13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에 방문해 교육생과 인재개발원 직원을 격려했다.

전남인재개발원은 도에서 총 사업비 478억 원을 들여 부지 7만 6천㎡, 건물 1만 4천㎡ 규모로 총 4개 동에 최첨단 시설과 휴게공간을 갖추고 지난 4월 1일 개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완도군,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량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나섰다

### 생산시설·유효성 센터 등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 역할

완도군이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량을 기반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선진국들과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면서 주목받는 산업이다.

이중 해양바이오산업은 지구 생물 종의 80% 이상인 약 30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해양바이오를 소재로 활용하는 산업이다.

특히 상업적으로 개발된 해양생물 자원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완도군은 해양생물 자원 중에서도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중이다.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은 미역, 다시마 등에서 얻는 알긴산(연골, 뼈, 근육, 혈관 등 조직 재생에 사용), 후코이단(항암 효과) 등을 의약품, 의류용 소재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생산하는 산업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7%일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완도군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조류 기반 바이오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 해양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할 목표로 '세계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과 함께 완도군을 중심으로 바이오 소재 공급기지 특성화 거점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군은 이러한 전략과 연계하여

해양바이오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전 시켜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올해 신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조류 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5년간 총 25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원료 물질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해양바이오기업에 완도산 해조류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생산 등을 위한 원료 소재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완도군 신지면에 조성 예정인 해양바이오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양바이오 연구 인프라도 조성 중이다.

110억 원을 투입해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를 건립하여 국내외 기업연구소 10개와 스타트업 30개소를 유치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산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국내외 해양바이오 연구소와 협력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유용소재 개발 연구사업과 해조류 기능성 효능 분석과 인증을 위한 유효성 평가 실증 지원센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해양바이오 소재로 활용할 해조류의 균일한 품질 유지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량 생산시설인 스마트팜 양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이민혁기자



## 장흥군 용산면, 버려진 공한지 정비

장흥군은 14일 용산면에서 '남상천 주변 환경정화 및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주민과 관광객의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방치되어 있던 월산재 앞 폐도부지 내 공한지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지역 사회단체를 비롯한 주민과 용산면 직원이 참여하여 공한지 내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가 무성했던 땅을 복토하여 남천나무 900본, 영산홍 600본 등 총 1,500본을 식재했다.

특히 이날은 소식을 들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화 활동에 참여했으며, 용산면 번영회에서는 복토에 필요한 흙을 운반하기 위한 덤프 트럭을 지원했다. 마을 이장들은 개인

굴삭기를 동원한 재능 기부를 하여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그동안 버려져 방치됐던 폐도부지 내 공한지는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지역민들로부터 우려와 함께 정비 건의가 잦았던 곳이다.

행사에 참석한 김성호 용산면 번영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살고 싶은 마을, 먹고 싶은 용산면이 될 수 있도록 번영회를 비롯한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순 장흥군수는 "오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주신 용산면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진도군, 들녘공동경영체 집중 육성

### 농산물 가공·체험·관광 등 6차 산업...내년 사업 신청 23일까지

진도군이 식량작물(들녘)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내년 식량작물(들녘)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식량작물(들녘)공동경영체는 50ha 이상의 농지에서 들녘단위로 농기를 조직화·규모화해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다.

진도군은 지금까지 메밀 등 잡곡 식량작물(들녘)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총 5개 법인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잡곡 생산조직 구성과 식량작물 가공, 유통 등을 통해 쌀 생산량을 늘리고, 식량산업분야의 자급율을 높이고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과 연계해 고부가 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 해남공룡박물관에 어린이 과학관 조성된다

해남공룡박물관에 공룡을 주제로 한 어린이 과학관이 조성된다. 해남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을 접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해남군을 포함한 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된 가운데 공룡을 주제로 한 과학관은 해남이 유일하다.

해남군은 박물관내 시설인 조류생태관을 과학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공룡을 놀이와 체험을 통해 만나고, 과학적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